

도교육청, 학생봉사활동 부담 줄인다

코로나19 등 변화된 교육환경 반영... 초 5~6학년생 총 8시간, 중·고는 3년간 각 30·27시간 이상 권장·통합운영

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교육감)이 학생 봉사활동 부담을 줄인다. 도교육청은 28일, 코로나19 등 교육 환경 변화를 반영한 '2021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학생 봉사활동을 운영해 왔으며,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을 제공해 학생 봉사활동 실적 관리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해 왔다. 학생 봉사활동 이수시간은 학교교육

계획(정규교육과정, 수업시간외)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합한 것이다. 올해 학생 봉사활동은 학년별로 운영되던 것을 통합 운영한다. 초등학교 5·6학년은 통합 8시간 이상, 중학교는 3년간 30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3년간 27시간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했으며, 학교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아울러 특정 학년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했다.(단,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시

수 2/3이상 편성) 변경전 학교급별 봉사활동은 연간 초등학교 8시간 권장, 중학교 12시간 의무, 고등학교 14시간 의무였다. 또한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학생 수준에 맞는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예외 인정(중증장애학생 면제) 등 장애학생 봉사활동 배려 내용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장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온라인 봉사활동 도움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

을 안내했다. 자살(해) 위기학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전용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학습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생명지킴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변화된 교육환경을 반영해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개정했다"며 "학생 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안내와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기르는 봉사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 계기'

전북교육청-전북교사노조, 단체협약 체결

전북도교육청과 전북교사노동조합은 28일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김승환 교육감과 정재석 위원장, 도교육청 국·과장 및 전북교사노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단체협약' 협의를 조인식을 가졌다. 지난해 3월 창립된 전북교사노조와의 첫 단체협약이다.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사노조는 지난해 5월 요구안이 접수된 이후 예비교섭을 통하여 교섭의 운영방법에 합의한 후 지난해 8월 상견례 및 총 13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전문 1개항, 본문 58개조 203개항 16개호, 부칙 7개조 12개항, 총 231개 안건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노동조합활동의 보장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및 보호대책 마련 ▲교원의 휴가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과후, CCTV, 방송시설 업무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한 업무분장 지도 및 교원업무 경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유아교육 자율성 확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이다.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사노조 양측은 이번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학교현장이 더욱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간 이행에 힘쓰기로 다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지역혁신협력실은 28일 미래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 산학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미래 자동차 · 부품산업 변화에 대비

전북대, 그린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지역혁신성장포럼 개최

전북대학교 지역혁신협력실이 미래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 산학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북대 지역혁신협력실은 28일 '전북 그린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지역혁신성장포럼을 개최했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인 이날 포럼에는 전북대를 비롯해 전주시,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캠퍼스융합기술원 등에서 참여해 자동차 및 부품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산업연구원 조철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발표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서는 자동차의 친환경 및 저능화, 경량화, 시장 현황과 변화 등 미래 자동차 관련 이슈 등을 검토했으며, 참석기관들의 다양한 의견과 협력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조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친환경 등 미래차로 급격한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산업변화에 대비하여 IT산업, 에너지산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다각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은 자동차 산업이 주력 산업인 만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도 부합하는 친환경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이 자동차산업 관련 이슈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포럼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 및 제언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비전대 김태훈씨 산업인력공단 감사패

전주비전대학교는 산학협력단의 김태훈(LINC+사업단, 국고사업프로젝트 성과관리 담당관)이 국가자격검정사업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자격시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주비전대학교 김태훈씨는 국가자격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방역 등 안전관리 및 수험관련 서비스 향상에 힘썼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검정사업 공동마케팅 등에 적극 협조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김태훈씨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역의 인재가 국가자격증 시험을 통해 능력을 키워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가자격검정사업에 전주비전대학교가 최우수 시험장이 될 수 있게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선을 다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전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비롯, 한국생산성본부(KPC),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무역협회(KITA), 한국세무사회, 한국전과진흥원,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상호협력을 통하여 전주비전대에 구축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창의융합 하이엔드(High-End)멀티미디어를 적극적으로 공동 활용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대, 2021년 등록금 동결 결정

재정난 속 '학비부담 경감 요구'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하고자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가 어려운 재정난 속에서도 학비부담 경감을 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정책에 부응하고자 2021년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대학은 지난 15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동결사항을 결정했으며, 이로써 전주교대는 교육비 경감 정책에 부응해 2011년부터 12년째 등록금 동결을 이어가게 되었다. 올해 전주교대 학부의 등록금은 한 학기 기준 163만6000원이며, 대학원은 인문사회계열 221만6000원, 자연체계열 233만7000원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학교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부 피력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학생 및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이에 대한 정부정책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학

교가 등록금 동결을 추진하고 있는 점, 또 대학원 재학생 수가 현저히 적어 인상을 반영한 추가수입이 대학재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점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동결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우영 총장은 "학부모의 부담 완화와 정부정책의 부응한다는 대응적 차원으로 등록금동결을 결정했지만, 재정여건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을 내일이 체감하고 있는 중"이라며, "등록금 동결에도 대학 교육기능을 잃지 않도록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교육대학교 한 관계자에 따르면 시간강사 인건비를 대학회계에서 일부 부담하게 되면서 전주교육대학교의 재정난이 급격히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2021년 예산에 요구된 부서예산을 일괄적으로 비율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는 후문이다. /장은성 기자

http://council.jinan.go.kr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 제8대 진안군의회 |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바른의회!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